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라

25면에서 계속

그냥 해결이 되고 싹 무마가 돼 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처 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그래서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 하면서 뛰고 사는 세대다 이겁니다. 지금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있었다면 앉아 있는 그 동안만 우주가 돌아가고, 또 일어났을 때는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자나 깨나, 돌아가는 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공이 없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거기다 놓곤 태연히 그냥 '날 잡아잡수. 허허허...',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뉘러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잡니까, 그게? 생전 안 잡아지지.

사회자: 네, 날씨도 무척 덥고...

큰스님: 아니,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대중 웃음) 조금만 더 합시다.

사회자: 큰스님께서 땀 흘리시는 것 같아서...

큰스님: 아니, 괜찮아요. 이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딴 겁니까? 땀을 흘려야 시원하고 또 시원하니 땀을 흘리고 이런 거죠.

질문자4(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때나, 꿈을 꿀 때나, 폭 잡이 들어 있을 때에 너를 보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너'가 주인공이나 대무심지(大無心地)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무심지,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그 적정(寂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큰스님: 이 부동한, 움죽거리지 않고 능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근본 자체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을 선장이다 한다면 내 영혼은 부선장이 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선장에 의해서 부선장이, 지금 여러분이 다 부선장입니다. 허허허... 부선장이,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질문자4(남): 또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요, 들어 보세요. 급하기는 꽤 급하신데, 하하하... 그러니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멍돌을 굴리는데, 그 멍돌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멍돌을 돌아가게 하는 힘의 배출구란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질문자4(남):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화두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절대오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신통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자우인으로서 경계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中道)에서 얘기하는 삼체원융(三諦圓融)이나, 무작사제(無作四諦)나 또는 어떤 의식이거나 어떤 사교의 관념을 갖지 않는... 예컨대 부처님한테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또 열반에 착을 두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돌아안 도리를 또 알게 되죠. 돌아안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뻘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돌아안 도리에서 돌아안게 화해서 나투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투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 없이도 할 수 있고 말 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견성도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

치는 겁니다. 첫번째 유(有)의 법을 가르치고 두번째, 무(無)의 법을 가르치고 세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틀고 앉아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자4(남): "문자와 언어를 버리고, 관념을 버리고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기는 거지만 고정화가 안되니까 공과 유와 다 같다. 이쪽으로 원융(圓融)을 해라." 하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또 "고(苦)와 집(集)을 버리고 도(道)를 떠나서 생멸(生滅)을 생각하지 않고 열반까지 버려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속에, 아무 말 없는 돌부처 안에 부처님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 생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린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것은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이고, 깨진 사람들끼리나 한 소식 얻은 사람 앞에 그 말을 탁 던지면 탁 알아들어서 받아넘기겠소.

질문자4(남): 공부를 하면서 특히 제일 의심 가는 게 시공, 소위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육화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공부 할 때는 시공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우리 공부에 좀 도움이 될는지요?

큰스님: 하여, 그게 무슨 해결입니까? 나 참, 아,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화돼서 바뀌고 그러는데 그걸 시간을 재서 말할까? 아니, 이 사람 만날 때 요 시간은 몇 시간인가 하고 재고, 요 사람 만날 때 또 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요렇게 마음이 돌아가서 "어, 자넨가?" 하고, 또 금방 식구를 만나면 또 "어보!" 뭐 어찌고저저고, 시간 썰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건 초월된 상태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초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미. 그런데 그대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질문자4(남): 큰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사회자: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큰스님 하명을 받았고 법형제 합창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품은 털 들었습니다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내 마음의 주인' 음성 공양이 끝나자 박수를 치시며)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 천지가 전부 꽃피가 내리는 듯 합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임의 소식' 음성 공양이 끝나 후) 아마 요 다음에도 천상에서 모두 모여서 꽃피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모두 노래들을 이렇게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마, 참 감사합니다. 정말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8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고가 오는 것을 오는 대로 밀쳐나가고 타파해가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면 열반에 빠진다는 그런 착이 놓아진 상태를 무심, 또는 아까 말씀을 올린 대무심지의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언어라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그냥 스님 말씀대로 오면 되고 또 오면 받고, 경계 없이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실천해 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그렇듯이 맥에서 꺾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낳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 하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련에도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디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견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

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불통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공무진하게 아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늙으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아주 그,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던 중간에 있던 위에 있던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애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

문자가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끝이 향하는 방향은...

큰스님: 방편이지만 현실이고 현실이지만 방편이지, 그게 방편이라고 해서 그냥 이론만 붙여서 방편으로 한 게 아니고,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질문자4(남): 그러면 '물속에 달이 떴는데 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나 '겨울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경계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당입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

큰스님: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있다 없다가를 떠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이렇게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시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계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통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